

## 신용한 "충북 판 확실히 바꾼다"…선대위 출범

등록 2026.05.15 17:14:07



[청주=뉴스시스]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가 15일 '황소 캠프'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후 당원, 지지자들과 함께 줍깅(조깅하며 쓰레기 줍기) 활동을 하고 있다. (사진=신용한 캠프 제공) 2026.05.15. photo@newsis.com \*재판매 및 DB 금지

[청주=뉴스시스] 이도근 기자 =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가 15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본선 체제로 전환했다.

신 후보는 15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6.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세 걸집에 나섰다.

'황소 캠프' 선대위로 명명한 선대위에는 원로 인사를 비롯해 전현직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한다. 특히 당내 경선을 함께 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, 송기섭 전 진천군수, 한범덕 전 청주시장 등을 총망라한 '원팀' 체제로 꾸려졌다.

창업특별도·장애인친화도·문화 예술·사회적 약자·도민주권·도내 균형발전·인재 영입·청주공항 활성화·안보 보훈·민생 등 핵심 공약과 관련한 후보 직속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분야별 역할을 세분화했다.

'충북 원팀'의 공식 출발을 선언한 이번 출범식에는 노영민·임호선 상임총괄선대위원장, 이광희·이강일·송재봉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당원과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.

발대식 후 신 후보와 당원, 지지자, 자원봉사자들은 청주 도심 일대를 돌며 '줍깅(조깅하며 쓰레기 줍기) 캠페인'을 진행했다.

보여주기가 아닌 참여형 선거운동을 선언한 신 후보는 "선거는 표를 얻기 위한 경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을 바꾸는 실천이어야 한다"며 "도민들의 힘을 모아 충북의 새로운 100년을 반드시 열어가겠다"고 말했다.

신 후보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을 순회하며 민생 중심 현장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nulha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